

# '평생학습 새 삶을 두드리다' 수기 공모전

부문	학위과정	성명	이영미
제목	'배우는 즐거움'이라는 치료법		
<p>&lt; '배우는 즐거움'이라는 치료법 &gt;</p> <p>내가 한양사이버대학교의 편입생으로서 다시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 평생학습의 도정에 오르게 된 이유는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피폐해져 갔던 육체 속에 자리한 내 정신의 무기력감을 극복하고 예전의 청명함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던 열망 때문이었다. 지금 나는 그 열망이 나의 존재론적인 가치의 회복을 돕는 대단히 긍정적인 것이었다고, 그리고 나의 인생에서 가장 바람직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p> <p>나는 한양사이버대학교에 편입학하기 전해에 암환자가 되었다. 당시 의사의 진단을 듣는 순간은 어찌나 놀랐던지 갑자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귀 속, 머릿속 전체가 텅 하면서 멍해지는 순간이었다. 머릿속에서는 '진짜인가요? 사실인가요?'하면서 물어봐야 한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지만, 내 입술은 움짱달짝할 수도 없이 접착제라도 붙인 양 딱 엉겨붙어 있었다. 그 때 처음으로 나는 내 정신과 내 육체가 분리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약하게 느꼈다.</p> <p>육체와 정신이 분리될 수 있음을 보다 명확히 느끼게 된 것은 수술과 항암치료의 여러 과정들에서 부작용, 후유증을 본격적으로 겪으면서부터였다. 병원에서는 항암치료의 부작용이 개인마다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예단하여 말할 수 없다고 한다. 어떤 이는 거의 부작용 없이 넘기는 이가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이는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부작용을 다 겪는다는 이도 있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어떠한지 그저 막연한, 그러나 그 영향력이 너무나 커서 범위를 정할 수도 없는 불안감에 떨어야만 했다.</p> <p>대부분의 항암치료시기의 환자들처럼 나의 기력은 하루가 다르게 급격히 떨어져갔다. 먹고 자고만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완전히 무기력한 생활이 계속되었다. 매일매일을 거의 침대 부근만을 맴돌며 지냈다. 밖으로 나가서 걷기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처방이 필수적으로 들어있었지만, 나는 떨어지는 빗꽃잎보다도 움직일 기력이 없었다. 설거지라도 할라치면 그것은 나에게 자그마한 뒷산이라도 오르내려야 하는 만큼의 기력을 요구했다. 재활용</p>			

쓰레기를 버리는 날은 에베레스트 등정의 다부진 체력을 요구하는 때이다. 이렇게 하루에 한두 가지 일을 하고 나면, 완전히 쓰러져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기분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곤 하였다. 내 육체는 외관은 거의 그대로—완전탈모의 부작용까지 있었다—인데, 기능적으로는 완전히 쓸모없이 되어버렸다. 나의 정신까지도 그다지 온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었다. 어느 날은 갑자기 문득 여기가 어디인지, 내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순간적으로 혼돈이 오면서 정신은 아득해져만 갔다. 어떤 때는 방금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나지 않아 잠시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정신은 멀쩡한 듯한데 수시로 기억은 나지 않는, 육체는 그럭저럭 멀쩡해 보이는데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 모든 항암치료과정의 하루하루는 나에게, 과연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했다. 나의 인생에 대한 지금까지의 열정, 책임감, 자신감은 하루가 다르게 급격히 위축되어가고 있었다. 나중에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독한 치료에 육체는 점점 기력이 소진되어갔고 정신은 오히려 차츰차츰 말뚱말뚱해지면서 인간으로서 느끼는 부당한 무력감을 더욱 처절히 느껴야만 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이 정신적인 명료함을 계속 지지해 주고, 저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피어오르는 이 우울한 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 깊은 고민이 시작되었다. 나는 지금 나의 환경에 맞는 최적화된 내 인생의 새로운 활력소를 찾아 나서야만 했다.

이렇게 나는 한양사이버대학교 영어학과 3학년에 편입하면서 언제나 부족하다고 생각해 왔던 영어를 다시 깊이 있게 배울 기회를 맞게 되었다. 내가 새로운 평생학습의 길로 들어선 것은 치료의 후유증으로 인한 나의 무기력감과 우울한 좌절감을 극복하고 싶었던 때문이기도 했지만, '새로운 배움'이 주는 즐거움이 더불어 나의 피폐해진 마음을 정서적으로 치유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편입학지원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 기력이 예전 같지 않았기에 과연 학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그 정도로 여러모로 쇠약해져 있었기에 한편으로는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사이버대학교이기에 오프라인학교처럼 큰 부담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 편히 먹자고 다짐하면서 원서를 접수하고 입학시험을 치렀다. 다행히도 결과는 합격이었다.

첫 학기에 수강신청 하면서 학위과정의 여러 트랙 중에서 TESOL트랙을 선택하여 학습진로를 설정하기로 하였다.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영어 외의 모국어 사용자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한 트랙이었다. 한양사이버대학교는 이처럼 학습진로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경우의 트랙들을 마련하고 학습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내가 영어학과에서 특히 만족할 만큼의 학습효과를 본 것은 영어학과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원어민 교수님과의 매주 토요일 오프라인 영어회화수업이었다.

레지널드 리 교수님의 오프라인 수업은 모두 영어로만 진행되었다. 매학기 토요일마다 2시간씩, 총 10번의 오프라인 영어회화수업이 있다.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하고, 아주 쉬운

단어들을 선택하여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손쉽게 늘어나고 더불어 실력도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반복적으로 말하기 훈련도 하고, 간간히 영어노래 배우기로 듣기와 말하기를 지도하는 등 교수님은 다양한 구성으로 지루할 새 없이 2시간 수업을 꽉 채워서 열정적으로 강의하셨다. 교수님은 일상영어에 대해 명확하고 쉽게 설명하시고, 또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선명하게 발음하시는데, 이것을 계속 따라 하다 보니, 어느새 나의 듣기와 말하기 실력이 크게 발전되어 있었다. 사실 50대라는 내 나이 또래의 사람들은 독해는 어느 정도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취약한 것이 듣기와 말하기일 것이다. 그런데 반갑게도 이 오프라인 영어회화수업을 통해 나는 듣기와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

영어학과는 수업 커리큘럼도 다른 사이버대학들보다 매우 다양하게 짜여 있었고 전체적으로 수업의 질도 굉장히 높았다. 특히 전반적으로 시스템화가 상당히 잘 되어 있었다. 예전에 젊은 시절에 대학을 다닐 때보다도 훨씬 뛰어난 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결과인 것 같았다. 나처럼 밖으로 매일 돌아다니기 어려운 상황의 사람들이 배움의 갈증을 수월히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첫 학기에는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거의 1년여에 걸친 모든 치료를 끝내고 이런 좋은 강의들에서 새 세계로 다가서는 지식들을 가르침 받고 있다는 굉장한 사실에 도리어 순간 슬픔 속에 놓인 적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교수님들의 열강 덕분에 나의 영어실력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영어학과 학위과정을 잘 마칠 수 있을까, 과연 나의 나머지 인생에서 이것을 잘 활용하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로 양극화된 감정에 순간순간 휩싸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든 배우고 나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위안하면서, 잘 될 것이라고 “힘내!”라고 스스로에게 소리쳐 다독이면서 오히려 초심에서 원했던 부분에만 만족도를 크게 느껴보라고 다짐하였다. 그래서인지 마음의 부담은 점차 줄어들었고, 학습과정에서 느끼는 만족도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매학기에 성취된 학업 성적표는 나의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해 주는 성과였다. 이제 더 이상의 문제가 없음을 스스로 느끼게 되면서 자신감이 거대한 풍선처럼 계속 부풀어 하늘로 점점 올라가는 듯했다.

나는 영어학과에 편입학한 첫 학기에 18학점을 신청하여 4.33의 성적을 취득하였고, 두 번째 학기에는 21학점을 신청하여 4.5 만점으로 1등이라는 성적장학 A를 받았다. 이러한 학습성과들로 인해 학문적 자신감이 과잉충만된 때문인지, 2019년에는 일본어학과로 복수학위과정까지 신청하면서 현재 기세등등하게 두 가지 학위과정의 학업을 당차게 수행해 나가고 있다.

나의 존재 증명을 위해 도전했던 이 평생학습은 갑자기 닥쳐온 인생의 우울한 시련을 내가 어떻게 정서적으로 극복하는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매우 명쾌한 해답이었다. 대개 사람들은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육체적 소모도 크고 정신력도 심각하게 손상되며, 시

력도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이런저런 후유증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된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는 했지만, 자신의 육체의 기력 회복 정도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고, 정신적인, 정서적인 회복의 내용은 더더욱 측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 나는 매주 이어지는 영어학과와 일본어학과의 여러 새로운 강의들을 들으며 내 영어와 일본어의 어학실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음을 느끼면서, 그러한 자질구레한 후유증을 잠시 잊고 정서적 만족감에 매일매일을 기뻐하며 살고 있다.

특히 요즘은 세계화, 다문화 시대인지라 영화나 TV드라마도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이 해당 작품의 내부에서 함께 뒤섞이는 경우가 많다. 영화 속의 영어를 자막 없이 보고 듣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일본어 TV드라마를 보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친근한 마음으로 감상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이전의 인생에서 나의 내면에 놓여 있던 여러 지식적인 장애물들이 차츰 사라져가고, 특히 항암치료과정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후유증인 우울한 감정들이 이미 모두 사라졌음을 깨닫고 있다. 이처럼 ‘배우는 즐거움’이 더욱 확실하게 나를 치유하고 내 시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이 평생학습이 치료법의 하나로 명명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긍정적인 기능을 내재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기가 끝날 때마다 받아 보는 성적표는 내가 지금 무사히 잘 살고 있고, 나의 정신과 육체적인 회복속도가 점점 강해지고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명서였다. 이것은 결코 병원에서는 받을 수도, 확인할 수도 없는 무형의 치료성적표나 다름없었다. 앞으로도 이것은 나의 존재 확인의 과정을 가시적으로 증명하면서 성공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그리고 틀림없이 이 새로이 습득된 지식은 나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다시 열어 주는 큰 자신감, 그리고 새로운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전문성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